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본부 출범

전북대, 캠퍼스 조성·운영 위한 비전·전략 공유… 폐교 재생·외국인 유학생 유치 통해 지역소멸 해법 제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본부(TFT) 출범식'을 열고, 캠퍼스 조성과 운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로, 윤명숙 대외취업부총장이 총괄 추진본부장을 맡아 전체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윤명숙 추진본부장, 국경수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장과 글로컬캠퍼스에 설치되는 3개 신설학과를 이끌 겸임교수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대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 부지를 재생하는 캠퍼스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됐던 지역경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이번 추진본부 출범은 그 실행을 위한 조직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글로벌커머스학과(100명/학년) △한국어학과(80



10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본부(TFT)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학년) △K-엔터테인먼트학과(70명/학년) 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3개 학과가 설치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거쳐 각 전공 중심의 실무 연계 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자 연

장, 취업 연계(창업 포함), 주거 지원 등도 뒤따른다.

한편, 전북대는 현재 남원시와 협력해 서남대 부지 리모델링, 교육시설 확충,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오봉 총장은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분교나 유학생 수용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육 생태계의 혁신적인 상상발전 모

델"이라며 "이 과업에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본부는 이러한 변화를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조직"이라며 "대학 본부는 학과 운영과 유학생 정착을 포함한 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14일 예체능 계열 입시 설명회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예체능 계열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예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학별 전형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체능 계열 입시는 학교 내신과 수능, 실기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계열에 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최고의 강사진을 꾸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키로 했다.

미술계열 강사로는 이정민 과천 을목중 교사가, 음악계열 강사로는 방유진 시온고 교사가, 체육계열 강사로는 노동명 상현고 교사가 각각 참여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함을 해소하는 시간도 제공된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접수 후 참석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고효율 광촉매 제조 원천기술 '주목'

전북대 유승화 교수팀, 다중 이종접합 구조 새 광촉매 설계
산업폐수 내 항생제·중금속 제거, 그린수소 생산 성능 탁월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고성능 광촉매 소재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자시스템공학과 레가 파라마니 박사와 유승화 교수, 전자·정보공학부 라그나마이 모하파트라 연구교수 연구팀은 기존 광촉매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는 다중 이종접합 구조의 새로운 광촉매를 설계해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전자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연구팀은 맥신, 금속 유기 골격체, 흑연질 탄소 질화물로 구성된 삼원

복합체 MXene/ZIF-67(Co)/g-C3N4 광촉매를 상온에서 간단한 공침법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한 것.

해당 광촉매는 ZIF-67과 g-C3N4 사이의 S-scheme 접합, ZIF-67과 MXene 사이의 Ohmic 접촉으로 구성된 이중 계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내부에 두 개의 전기장을 형성해 광생성 전자의 역류를 방지하고, 전자의 이동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저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전자 전달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실험 결과, 연구팀은 이 광촉매를 활용해 산업 폐수 내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염산염, TCH)와 중금속(크롬)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또한 물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유승화 교수는 "이번 성과는 청정 에너지 생산과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최신호(2025년 제516권)에 게재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익산 초교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추진

전북교육청, 7월까지 수업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익산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업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 미디어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해 7월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기자단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2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미디어교육 전문가가 직접 학급 담임 교사와 함께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총 10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어린이 기자단은 신문의 역할, 기사의 종류와 작성 방법, 인터뷰 실습 및 기사 작성, 기사 편집 등 신문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은 라디오 방송의 구성과 기획부터 프로그램 제작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게 된다.



전주 오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수업.

이를 통해 미디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신문과 라디오 방송의 뉴스 기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주오송초등학교 유지아(5년) 학생은 "라디오 DJ 혼자서 방송 작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도내 초·중학교 62개교 120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5일 '공개실기시험' 시도 지역 음악계 '새 지평' 여나

전주대 대학원 음악학과

실제 공연무대에서 공개 진행

일반 관객들도 참관 가능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공개실기시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일반대학원 생들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기존에는 재학생들의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시험을 비공개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기말고사 실기 시험 평가는 일반 관객들 모두 자유롭게 입장해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이번 '공개실기시험'에서는 '공연'으로 확장된 새로운 형태를 선보인다. 실기 고사장이 아닌 실제 공연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학생 연주자들이 보다 큰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관객과 함

께 호흡하며 음악적 감동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도내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형태로, 지역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전공주임 김정미 교수는 "실기시험을 큰 무대에서 연주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번 공연이 시작됐다"며 "단순한 실기시험 평가를 넘어 연주자들의 생생한 감정은 물론, 그 떨림까지도 관객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개실기시험은 서양 음악 발전의 첫걸음을 실현하는 자리"라며 "미래 예술인 발굴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 수 있는 무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원 음악학과는 최근 전주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미래 예술인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글로컬30 대학상생사업 선정

총 30억4900만원 확보... 도 수요 3건·대학 특성화 3건 등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25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총 3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 사업으로, 지역 수요와 대학 특성화, 시군별 현안 해결 등 세 분야의 과제를 공모해 선정했다.

우석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 도 수요 과제로 △해의 유학생 유치 지원 △지역 자립 연계 늘봄학교 지원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3건, 대학 특성화 과제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융합 인재 양성 △DNA 레드바이오 융합 혁신인재 양성 △전북 특화 미식관광 혁신전문인재 양성 등 3건이 선정됐다.

또한 시군 현안 해결 과제로는 △전주시 1건(전주형 영화·관광산업 융합 문화단지 거점 조성 위한 리빙랩 운영) △정읍시 2건(청년 중심 거리 문화도시 정읍 만들기 / 정읍의 과거

와 미래를 잇는 참여형 로컬 콘텐츠 개발 운영) △남원시 2건(새로운 남원 실현을 위한 솔로몬 리빙랩 프로젝트 / 빛, 소리, 움직임이 특별한 도시, 남원) △완주군 1건(청년 봄! 청년이 취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장수군 1건(빨간 맛으로 지역과 사람을 물들이다) △부안군 1건(세계로 도약하는 부안 실현을 위한 리빙랩 거버넌스 운영) 등 총 8건이 포함됐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 산업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희석 RISE 단장은 "이번 선정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지역 수요에 맞춰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RISE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애학생 진로 탐색·대학생활 적응 돕는다

전북대,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장애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잇달아 운영하며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5월 28~29일 장애학생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실시한 데 이어, 이날 9~10일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전북대에서 열린 진로·진학 박람회 기간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 및 캠퍼스 내 시설 등을 안내하며 전북대 진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및 인솔 교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어 6월에 열린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대가 주관한 행사로, 전주술내고, 남원용성고, 전북사대부고, 전주은화학교 등 4개 고등학교에서 총 8명의 장애학생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생활 특강, 전공 체험, 캠퍼스 투어 등 대학생활을 직접 체험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상품채플 상품 인증서 수여·장학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학년도 1학기 상품채플 수료생 414명에게 상품 인증서를 수여하고, 총 2,43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품채플은 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채플 수업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그룹 중심의 상품 수업을 진행하는 필수 교양과정이다.

8년간 약 4만 명의 학생이 이수한 이 수업은 총 28개의 상품 주제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 학기동안 채플을 이수한 학생들과 채플을 섬기며 학생들을 이끈 리더들이 함께했다. 수여된 장학금은 지역사회와 채플 리더들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선교기금으로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